태고종, 법원 판결에도 장기화 조짐

집행부 "승소, 즉각 퇴거" vs 비대위 "다시 종회 열어 불신임"

선암사 소유권 두고 조계종과 갈등 재점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태고종 중앙종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서 승소한 가운데, 중앙종회가 즉각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재가결하는 등 태고종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2월 2일 도산 스님이 신청한 '효력정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에 대해 "태고종 중앙종회의 총무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도산 스님은 지난해 10월 7일 태고종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안 의결 후 10월 20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서 중앙종회법 상 소집절차 위배 및 보궐선거 생략에 따른 결원상태에서의 불신임 결의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법원은 "임시중앙종회가 종연 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에 임명하기로 결의한 것도 무효이며 이에 따라 도산 스님의 총무원장 직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태고종 집행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대위 측이 즉각 청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청사 점거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만일 물러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2월 5일 신촌 봉원사서 제118회 중앙종회를 소집해 총무원장 도산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중앙종회의원 57명 중 비대위측 의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종회서 총무원측 종회의원 16명에 대한 제명 안건도 상정 처리했다. 또한 비대위측 종회의원 스님들은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재추인했다. 태고종 집행부 측은 "불법으로 열린 종회는 원천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앞서 태고종 비대위는 2월 3일 성명서를 통해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므로 항소 하겠다"며 "종단은 사회법보다 종헌종법이 우선하므로 청사 안에 있는 스님들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법원의 가처분 판결 직전인 2일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한국불교전승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와 비대위의 동반 퇴진을 제안했으나 비대위측에 의해 거절당했다.

한편 태고종의 내홍이 깊어진 가운데 태고종 총본산인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과의 갈등도 불거졌다. 태고종 측은 지난해 12월 중순 선암사 부동산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로 등기된 데 대해 조계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은 1월 29일 직지사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37회 회의에 참석해 태고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2월 5일 태고종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협의회(회장 도광)는 선암사서 종단 안정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비대위가 '효력정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고종 집행부도 선암사서 '선암사 수호 결의대회' 를 개최한데 이어 비대위도 선암사를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주일 ·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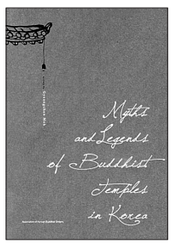
영어로 만나는 한국 사찰 설화와 전설

종단협, 한국불교 소개 영문 책자 발간

한국불교 사찰에 담긴 설화와 전설을 외국에 소개하기 위한 영문 책자가 발간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은 한국불교를 홍보하기 위한 외국어 책자인 〈Myths and Legends of Buddhist Temples in Korea(한국 사찰의 신화와 전설)〉을 최근 펴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한국불교 소개 책자 발간 사업은 2008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다. 종단협은 7회 사업의 주제로 전통사찰의 설화를 선정해 목경찬 불광교육원 전임강사가 저술한 〈들을수록 신기한 사찰 이야기(조계종출판사)〉를 원본으로 번역과 감수를 거쳐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책은 크게 4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국 전통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불교문화 에피소드, 절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슬기롭게 가꾼 절집, 감응으로 나투신 불보살과 이 땅의 역사와 함께한 불교의 역사를 영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종단협은 영문판 〈한국 사찰의 신화와 전설〉을 2000부 발간했으며 협회 회원 종단을 비롯해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 해외 한국사찰, 종립대 도서관, 주한 대사관 등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사찰 출토 문화재, 사찰 소유권 인정 받나

문화재청, 개정 매장문화재법 시행… 소유권 분쟁 실마리

지난해 12월 개정된 매장문화재법이 1월 29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발굴문화재 소유권 분쟁 해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 출토유물 판정 과정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신 문화재 · 법률 ·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문화재청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 시행은 불교계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불교계는 2006년 양주 회암사, 2013년 평창 월정사 출토 문화재를 두고 문화재청과 소유권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진관사에서 출토된 272점의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국가 귀속을 결정하며 불교계의 반발을 샀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진관사가 국가관리 사찰이었으며, 1908년 이후 대중

문화재청장이 유물 소유권 결정
법률 · 역사 등 종합 검토 가능해
발굴조사 활성화 대비 주문도

사찰이 된 점을 들어 국가소유로 판정을 내렸다. 이에 조계종 문화부와 진관사는 판단 근거가 비상식적이라며 비판해 왔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문화재위원의 경우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원소장처 역사와 법률 등 종합적인 소유권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은 당사자들과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1월 26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 진관사 출토 유물관련 의견 요청서를, 진관사에는 출토 유물 보완자료를 각각 요청했으며, 총무원과 진관사는 9일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총무원 문화부는 사찰 승탑이나 부도 등에서 나온 문화재와 역사적 연속성이 명백한 사찰 내 출토문화재에 대해 사찰 소유를 명시하는 조항 추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에는 사업면적 3만㎡ 미만의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과 매장문화재 발굴현장과 발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발굴조사에 앞서 시행되는 지표조사는 모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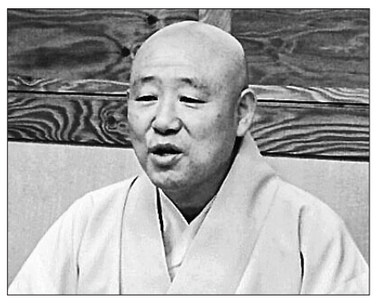
안재호 동국대 교수는 "개정안 시행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며 "매장문화재 전문 발굴조사연구기관은 83곳에 이르는데 13곳의 국가유관기관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이 운영한다. 발굴조사기관들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요건"이라고 말했다.

매장문화재 발굴에 앞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불교계의 관리 능력 배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유물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물을 문화유산으로 보존 ·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교계는 불교문화재 소유권 주장과 함께 그 가치를 어떻게 확대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사, 생전예수재 문화재 지정 나선다

주지 원명 스님 5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총본산 성역화위한 복장불사
스토리가 있는 국화축제 추진
연꽃축제 · 신도 포살법회 신설



조계종 총본산인 종로 조계사가 생전예수재를 문화재 등록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조계사는 관련 학술대회를 5월 중 개최한다. 종단에서 추진하는 성역화 사업 중심에 있는 만큼 기금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사진〉은 2월 5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찰 운영계획과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조계사는 올해 사업 기조로 '친절하고 행복한 조계사!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로 정했으며, 종단의 수행 · 문화 · 생명 · 나눔 · 평화의 5대 결사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 사업 기금 조성이다. 지난해 조계사는 성역화 사업 출범 당시 불사 기금 100억 원을 약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조계사는 대웅전 삼존불 금강경 복장불사를 1차로 시작한다. 현재까지 630여 명이 동참했으며, 올해 안에 40억 원을 모연할 계획을 갖고 있다. 1차 복장불사 마감은 오는 5월 18일까지다.

이와 함께 조계사 생전예수재의 문화재 등록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들어간다. 선행 사업으로 오는 5월 9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생전예수재'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한국정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는 이성운 동국대 외래교수가 '의례 예문에서 본 생전 예수재' 를,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의례연구소장 혜일스님이 '무형문화로서의 생전예수재' 를, 구미래 동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가 '민속학적 측면에서 본 생전예수재' 를, 성청환 동국대 불교대학 연구교수가 '조계사의 생전예수재' 를 주제로 논문을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 前 조계종 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 서정매 부산대 교수, 이재수 동국대불교학술원 교수가 참여한다.

원명 스님은 "생전예수재는 가장 불교적 의례"라면서 "스스로 닦아내는 신행적 불교의례로서 의미가 크며 조계사의 생전예수재는 그 형태가 잘 보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전예수재에 대한 경전적 근거와 조계사 생전예수재에 대한 근대 역사적 사료도 이미 확보했다"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3월 23~30일에는 스리랑카 마하보리수 묘목을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기증받기 위한 불교문화탐방을 진행한다.

수행결사 차원에서 지난해 8월 입재한 금강경 일만독송 법회와 12월 시작한 초하루 포살법회를 이어가며 △불교대학 학생 대상으로 봉사학점제 운영 △지역염불 봉사 △권역별 걷기명상 △생명살림 법회 등을 통해 신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계사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잡은 가을 국화축제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사람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주제는 '금강경' 으로 조계산을 상징하는 육조혜능 선사 등으로 장엄한다. 또한 오는 7~8월에는 연꽃축제로 더위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계획이다.

원명 스님은 "이제는 문화포교의 시대"라고 강조하며 "불교가 일상 속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계사도 한국불교와 종단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문화포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보광 스님 문제 논문 표절 · 중복게재 판정

동국대 5일 본조사 결과 발표
일각 윤리위 공정성 의혹제기

동국대 연구윤리위가 총장 후보 보광 스님의 표절의혹 논문 30편 중 2편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렸다.

동국대는 2월 5일 연구윤리위(위원장 박정극) 본조사 회의 후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30편 중 2편은 표절, 28편은 중복게재 판정을 받았다.

연구윤리위는 "전반적으로 표절 또는 중복게재 혐의가 큰 편"이라며 "국내외 판례와 사례 연구를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그 혐의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글의 핵심논지 구성과 흐름, 각주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활용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방식이 양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타인의 저작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국대의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총장 후보 검증 문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동국대 연구윤리위의 절차 위반 등을 들어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동국대 학부 · 대학원 총학생회는 2월 3일 토론회를 열고 총장 선거 재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총장 선출이 강행된다면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5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총장명의 불교학전공 학위과정 모집

모집전공	과정	교육기간	수업시간	동국대학교 총장학위명	비고
불교학전공	주말특별과정	2년 15주	주 1회 (토) 09:00~21:00	문학사	총장명의 최소이수학점 84학점 이상
	주중(학년제)과정	3년	주 2회 (월,화) 10:00~17:00		
	타전공학위과정	1년 15주	주 1회 (토) 09:00~21:00		48학점 이상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기타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력인정 예정자 포함)
- 전문대학 졸업자
- 대학 중퇴자 및 졸업자

■ 모집일정
- 원서접수 마감일 : 2015.2.27.(금)
- 면접일 및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원서접수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http://edulife.dongguk.edu) 접속 → 학점은행제 클릭 → 해당전공명 클릭 → 입학지원 클릭 → 입학원서 작성 후 확인 버튼 클릭 → 입학원서 출력
방 문 접 수 • 제출서류를 지참하시어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방문 후, 원서접수 평일 10:00~16:00 / 토요일 10:00~16:00 (방문 시 사전 연락)

■ 문의 및 상담 : 02-2260-3730

총장명의 경영학, 아동학, 체육학 학위과정 모집

모집전공	학위수여명의	과정	교육기간	개강일자	문의	비고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주말특별과정	2년 15주	3월7일 (토)	2260-8801	총장명의 최소이수학점 84학점 이상
아동학전공	문학사	주말특별과정				
체육학전공	체육학사	주중(학년제) 과정	3년	3월9일 (월)	2260-3729	
		주말특별과정	2년 15주	3월7일 (토)		
음악전공 (피아노, 성악, 관현악)	음악학사	주중(학년제) 과정	3년	3월9일 (월)	2260-8802	교육부 장관명의

※아동학전공 :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시 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가능한자
• 원서접수기간 : 2015년 1월 2일부터 마감 시 까지
• 원서접수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http://edulife.dongguk.edu)

독학사학위과정

모집전공	모집구분	개강일자	입학문의처	비 고
• 국어국문학 • 영어영문학 • 컴퓨터과학 • 법학과 1단계 교양과정	주중반	2015. 3.2(월)	02)2260-8842	2년 만에 학사학위 취득 및 학사편입 가능

평생교육과정

모집구분	과정구분
특별교육	현대인상학최고위과정, SNPE 바른자세3P최고위과정, PIA(탐정민간조사)최고전문가과정, PSA(상조마케터) 최고전문가과정, APP(에스테틱)최고위과정, 노후설계 전문가강사양성과정, 동국학부모대학, TESOL과정
역량개발	스포츠레저, 골프지도사, 비만체형관리사, 실용무용, 스포츠방송CF모델, 스포츠패션모델, 스포츠무용, 스포츠지도사, 요가필라테스, 유아아동체육, 트레이너운동처방사, 생활체육
민간자격증	가요전문지도사, 명상심리지도사, 풍수인테리어지도사, 미술심리지도사, 색채심리지도사, 주산활용수학교육사, 한문지도사, FNT(사성제)와 자비명상, 차명상지도사, 마인드케어지도사, 예술심리상담사, 인성교육지도사, 웃음행복코치
음악교육	음악실기(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바스, 플루토,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가요강좌, 찬불가 힐링스쿨
마인드힐링지도사	마인드힐링지도사 통합과정(6기, 7기 신입생), 방과후차명상지도사, 위빠사나 마음관찰
동양철학	김동완사주명리학, 인상과 개운, 육임, 성명학(감정 및 작명), 미래예측사주명리학, 미래힐링사주명리학, 역리한자 한문
불교문화	명상지도전문강사과정, 선무도&선요가, 불교무용, 불교의식실용반, 불교미술, 기본한문, 불교한문

원서접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edulife.dongguk.edu)

dongguk UNIVERSITY | 평생교육원